

# 자기소개서

## 강점 및 성향

저는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단순히 구현에 그치지 않고, “왜 이렇게 동작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구조를 선호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류나 막힘이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좁혀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며 필요할 경우 문서·공식 문헌·오류 로그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접근합니다.

협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명확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맑은 기능을 일정 내에 정확히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행 상황과 어려운 점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여 전체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프로젝트 기반 실전 역량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개발 역량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Android 기반 독서 기록 앱(Book-Log) 개발에서는 UI 구성, 날짜 필터링, Firestore 연동, API 검색 기능 등 여러 기능을 설계하고 직접 구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면 구조가 한 요소만 바뀌어도 다른 화면과 총돌이 일어나는 문제를 경험했고 그래서 “당장 보이는 오류만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수정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은 기능 하나를 넣더라도 화면 이동 구조, 데이터 흐름, 상태 유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개발 과정에서는 디자인·레이아웃 문제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경험했습니다. 화면 크기에 따라 카드가 잘리거나 모달 크기가 맞지 않거나 반응형 구조가 깨지는 문제들이 계속 생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CSS 구조를 통째로 다시 보거나 UI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경험은 “작은 수정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전체 레이아웃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 그 자체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며 근본 원인을 찾는 방식이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화면 개발을 반복하면서 단일 기능이 아니라 화면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고려한 설계가 왜 중요한지 체감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에서도 필요한 기준을 직접 정의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역량 역시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

## 향후 목표

---

지금은 여러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개발 흐름을 익히는 단계이지만 오래 가려면 결국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단순히 '사용할 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 동작 방식까지 이해하면서 탄탄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유지보수가 편한지, 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같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 구현뿐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더 고민하고 "돌아가는 코드"를 넘어서 "잘 만든 코드"를 꾸준히 연습하려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작은 프로젝트뿐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서비스도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볼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속도로 차근차근 넓히고 깊게 쌓아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